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뿐입니다</b>
	배포일자	2023년 4월 12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 정신건강팀장 이은실 ☎440-1581 • 담당자 심연희 ☎440-158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자살예방 정책 제안할 시민 자문단 첫 발**  
**- 다양한 계층의 ‘자살예방 시민 자문단’ 구성 -**  
**- 자살예방 정책 제안, 예방 사업 아이디어 제시 등 역할 -**

인천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일조할 자살예방 시민 자문단이 첫 소통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민 곁으로 다가가 소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인천시 자살예방 시민 자문단’ 첫 간담회가 12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시민 자문단은 인천시 자살률 감소를 위해 현안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 시민들의 시각에서 자문을 듣고자 구성됐다.

시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평소 자살 문제와 시정에 관심이 높은 인천시민 10명을 자문단으로 선정했다. 다양한 시각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학생, 청년부터 중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됐다.

시민 자문단은 자살 예방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자살예방 시민인식 조사와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전반에 의견을 제안함과 더불어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주기적으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자문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마련하는 등 자문단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2023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인 ‘오늘도 너에게 쓰담쓰담’을 적극 반영한 사례로, 시는 자살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살예방 시민 자문단을 통해 제안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건강자가진단 및 온라인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